

한마음한몸

30th Anniversary
3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988-2018

2018 겨울호 | vol. 40

One-Body One-Spirit Magazine Winter
www.obos.or.kr

SPECIAL

꾸준하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
모든 결실이 당신의 나눔 덕분입니다



COVER STORY



아이들의 생일이면 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이름으로 정기기부를 해온 가은이, 예준이네 가족. 아버지 이규형 스테파노 님은 말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니까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기획특집

- 3 꾸준하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

함께하는 기도

- 7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8 사랑나눔 결산

- 8 모든 결실이 당신의 나눔 덕분입니다
11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마음한몸 리포트

- 12 2,255명이 용기 내다, 52명이 생명을 살리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3 하나뿐인 별을 밝혀주고 싶어요

현장 속으로

- 14 내 나이 57세, 처음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함께해주세요

- 16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 18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 20 한마음한몸 새 소식

통권 40호 | 2018년 겨울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8년 겨울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 www.obos.or.kr

f facebook.com/oboscorea

📷 onebody_onespirit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꾸준하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



가은이, 예준이네 가족을 처음 만난 건 지난 11월, 도곡어린이집에서 진행된 ‘2018 나누미네 티타임’에서였습니다. 빙 둘러앉아 가족별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유독 수줍음이 많았던 가은이와 예준이를 보고 살짝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바닥 그림동화 활동과 오르프 음악 공감 놀이에 활기차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기우라는 걸 알았습니다. 활동이 진행된 유치원 복도에는 이들 가족이 생애첫기부, 생일기부를 했을 때 기념 촬영했던 사진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대림동 성당에서 이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은이는 씩씩하고 그리기에 소질이 많은 어린이였고, 예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자녀의 첫 돌부터 매년 생일마다 생애첫기부, 기념일기부로 꾸준히 나누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부부 이규행스텝파노, 김윤희루시아님을 만났습니다.



11시 미사가 막 끝난 서울 대림동 성당에서 가은이, 예준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마음한몸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규행^{스테파노}(이하 이) 안녕하세요. 올해 여덟 살 가은이, 다섯 살 예준이 가족입니다. 저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이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요. 함께 사는 가족 모두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예요. 아내는 IT쪽 일을 하고, 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나누미네 티타임에서 행사장에 붙어있던 기부 사진을 봤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 첫째 가은이의 돌인 2013년에 처음으로 생애첫기부를 했고, 그 이후 생일마다 생일기부를 해왔어요. 둘째 예준이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생애첫기부를 하고, 생일기부를 이어왔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기부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기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윤희^{루시아}(이하 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하고 아팠었어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 아픈 친구들에

대해 공감이 가고 유독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결혼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생각하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결혼하면서 어떻게 실천하셨나요?

김 혼배 미사로 결혼을 했는데 신부님 말씀 중에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러겠다고 맹세를 하니 갑자기 미래의 부모로서 책임감도 생기고,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대림동 본당으로 와서 견진 성사를 받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미래에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주보를 넘기다가 한마음한몸 월간 소식지를 봤는데 마지막 장에 생애첫기부가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런 경험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했지요.

기부를 시작할 때 같이 논의를 하셨을 텐데, 배우자로서 어떠셨어요?

이 일단 여건과 관계없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나눔의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베풀며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아내가 제안했고 취지도 좋아서 동의했습니다.

처음 기부하실 때 본부에 직접 연락을 하셨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김 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렸는데 상담을 잘해주셨어요. 본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전달식을 할 수도 있고 기부금만 내는 형식도 있다고 하셨어요. 가서 전달식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매년 아이들 생일 때 가서 전달식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들을 나중에 액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그걸 전시해 놓으면 애들이 얼마나 컸는지, 몇 번 기부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저희는 치료비 지원사업에 후원하고 있는데, 촬영하려 가면 본부에서 ‘이런 친구들에게 기부금이 쓰인다’는 걸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아이들이 봤을 때도 ‘아 이렇게 아픈 친구들을 내가 돕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요.

아픈 또래 친구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얘기해주시나요?

김 기부할 때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야.’라고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때 아이들 반응은 어떨까요?

이 가은아 아픈 친구들 도와줄 때 마음이 어땠어?

가은이 음~ 좋았어!

이 앞으로도 계속 해주고 싶어? 가은이가 장난감 하나 못 사도 괜찮아?

가은이 아, 아니~ 안 돼.

이 안 돼? 아... (일동 웃음)

가은이가 장난감을 양보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김 큰 아이가 가톨릭 재단의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우분투’라고,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나라 친구들을 위해 후원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종이에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헌금 금액을 적어서 보내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소액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가은이 나 도와주는 사람 이름 알아. 이브아살라.

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가은이 몰라. 아 생각났어 에티오피아!

이 수녀님이 원장님이신데, 그렇다 보니 인성교육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저희도 간접적으로 ‘그래. 나눠야지.’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 지금 조부모님과 같이 지내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갔어, 같이 밥 먹어야 해.”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김윤희 루시아 님, 이규행 스테파노 부부.
부모님의 계획 덕분에 두 아이는 생일마다
아픈 또래 친구들을 돕습니다.



그리기를 좋아하는 가은이와 그런 누나를 줄곧 따르는 예준이.
가은이는 공룡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김 저는 얼마 전에 했던 가족회의가 생각나요. 유치원 부모교육에서 ‘가족회의를 하면 아이들 주장도 알 수 있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길래 한번 제가 주도해서 배운대로 가족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랐던 걸 잘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런 점은 고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걸 고친다고 하셨나요?

김 아빠가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애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장난기가 있어서…. 그런 걸 싫다고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안 하게 되셨어요?

이 아 그건 아닌데…. (웃음) 그래도 얘기 듣고 나서 좀 줄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더라고요.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시길 바랄게요. 가은이, 예준이 가족에게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이 나눔은 우리들의 미래인 것 같아요. 요즘은 빈부격차도 심해졌는데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게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김 가은이는 유치원에서도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나눔을 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 저희도 간접 경험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눔을 저희도 하나씩 깨우쳐 가면서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음한몸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김 저희가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서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도 본부가 서울 외 지역에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신자분들이 이 특별한 나눔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오히려 저희 스스로 따뜻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 신자든 비신자든 나누고 베푸는 건 좋은 경험이잖아요. 적든 많은 간에 꾸준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니까요.

이규행, 김윤희 부부는 말보다는 행동하는 부모였습니다. 나눔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놓아두는 일, 크기와 상관없이 나눔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는 일, 내가 감사하고 축하받을 날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는 일. 이 나눔의 추억이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남게 될까요? 가은이, 예준이네 가족의 따뜻한 온기에 매서운 겨울바람도 기분 좋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시다.

사진 촬영: 아베크 스튜디오

생애첫기부 및 기념일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하느님,
알게 모르게 재화, 재능,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공감하여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토빗 12,9)”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달려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30년은
주님의 생명, 사랑, 평화, 기쁨 안에서 성체성사의 정신으로
한 몸이 되어 사랑을 실천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전해온 나눔의 역사였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느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결실이 당신의 나눔 덕분입니다

2018년에도 많은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첫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내용 및 결과는
2018. 1. 1. ~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18 국제개발협력 사업

빈곤 없고 정의로운 지구촌을 꿈꾸고 만들어 갑니다.

국제개발협력

한마음한몸기금협력사업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케냐, 부룬디

1,216,384,984원



6개국 | 13개 사업

대외기금협력사업

필리핀

129,750,385원



1개국 | 1개 사업

해외특별지원사업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가자지구,
부르키나파소, 세르비아, 잠비아, 가나,
에티오피아, 멕시코

341,372,081원



10개국 | 13개 사업

인도적지원

인도적지원사업

라오스, 인도

134,812,660원

2개국 | 2개 사업

정책 및 연대활동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 및 연대활동으로
국제개발민간협의회 이사단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단체, 가톨릭해외원조네트워크 참여단체로
활동합니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정책입안 및 애드보커시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지구시민교육

청소년지구시민교육

교육횟수: 40회

참여인원: 493명

청년지구시민교육 '띠앗누리'

24기 참여인원: 11명, 활동국가: 캄보디아
(활동기간: 2018. 1. 23. ~ 2. 6.)

25기 참여인원: 13명, 활동국가: 네팔
(활동기간: 2018. 7. 28. ~ 8. 11.)

지구시민서포터즈

활동횟수: 8회

참여인원: 6회

2018 국내 사회복지지원 사업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사회복지 사회사목지원

사회복지 산하단체 및
사회사목 단체지원금



716,669,600원

국내특별지원

각종 자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 지원



24,528,750원

생명수호기금지원

생명운동 전문가 인재양성 및
생명의신비상 기금



150,000,000원

2018 생명나눔운동 사업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사업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4,497명
(누적 152,088명)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



2,255명
(누적 45,403명)

조혈모세포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환우



누적 560명

모집 캠페인



총 72회
(성당 21회, 대학교 41회,
병원 2회, 기타 8회)

생명나눔교육



18회

환우지원사업

백혈병·난치병 환아

135,500,000원



17명

장기이식대기 환우

96,000,000원



12명

긴급환자 지원

140,400,000원



23명

헌혈증 지원



5명
헌혈증 995매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



22개 병원 소아병동
환아 1,600여 명

2018 자살예방 사업

생명을 존중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캠페인 시행

전국 본당·학교·거리 등



참여 인원 **5,956명**

2018 생명콘서트

그 외 가톨릭평화방송 TV, 라디오 중계



참여 인원 **800여 명**

자살예방 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7회

게이트키퍼 양성



435명

자살예방활동가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157명

전화 및 면접상담



전화(1599-3079) 및 면접 통한
자살위기 상담 인원

1,727명

해바라기 슬픔돌봄모임 및 피정



해바라기 슬픔돌봄 사별가족 모임 및 피정,
슬픔 속 희망찾기 모임 참여 인원

70여 명

심포지엄



제6회 한·일 자살예방심포지엄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협의체 대표
일본 나고야 방문
주제: 차별로 인해 자살위기에 내몰린
이들을 향한 돌봄

11명

2018 한마음한몸 나눔이야기

나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합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새로운 후원회원 수 **1,722명**
(누적 53,835명)

생애주기별기부



생애첫기부 **372건**
기념일기부 **729건**

생애주기별기부 부모교육



나눔미네 티타임
2회 개최

나눔가게·나눔기업



참여가게·기업
누적 304개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서별 실무자 인사말



자살예방센터 류정희에밀리아나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지킨 한 해였습니다.

자살예방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전국의 생명운동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님,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애써주신 전화상담봉사자님, 7년간의 생명콘서트를 위해 땀 흘린 연대 생명운동기관의 실무자와 자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신 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생명운동에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소중한 우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협력팀 오규상디모테오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마음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해외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떠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외국어 번역 봉사자님, 함께 지구촌 이슈를 탐구한 피앗누리과 청소년들, 가난의 현장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뜻을 함께해주신 각국의 교회와 파트너 기관 및 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기도와 나눔으로 본부의 뒤에 서주셨던 후원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그 마음을 모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옆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팀 이상민미카엘

2018년도 삶의 힘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본부에서 홍보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나눔을 전달해 주시는 현장이나 나눔이 전달되는 현장에서 많은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고액의 치료비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환자부터, 척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티의 산골 주민들까지. 저희가 전해 받은 온갖 감사를 짧게나마 대신 전합니다.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법인행정팀 장선하루시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30주년의 영광은 후원자님과 함께!

2018년에 30주년을 맞이한 본부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후원관리를 담당하는 저도 ‘3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를 준비하며 후원자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들떴었습니다. 준비한 행사에 얼마나 와주시길, 공연을 좋아하실지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벅찬 마음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늘 본부를 격려해주시고 아껴주시는 후원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에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해주세요!



생명운동팀 이창하엘리사벳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덕분에 생명나눔의 기쁨과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본당 공동체와 기관, 모집 활동을 해주신 봉사자님, 전국 장기기증네트워크 실무자분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주신 기증희망 신청자분들과 헌혈증 기부자분들. 실제 기증을 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신 조혈모세포 실기증자, 사후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분들까지. 먼저 이웃이 되어주신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덕분에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전하고 기쁨과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과 건강을 빕니다.

2,255명이 용기 내다 52명이 생명을 살리다

2018 조혈모세포 기증 결과보고

본부는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기관으로 선정되어 생명을 살리는 조혈모세포 기증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만 서울대교구 대학생사목부, 광주대교구, 원주교구 등과의 협력으로 2,255명을 모집하여, 총 46,489명의 누적 기증 희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올해는 52명이 조혈모세포를 실제로 기증하여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기증 희망자

2,255명

누적 기증 희망자 46,489명



실제 기증자

52명

누적 실제 기증자 563명

연도	총모집 건수	실제기증자수		
		골수	말초혈	계
2003	2,000	-	-	0
2004	2,000	3	-	3
2005	2,500	4	1	5
2006	4,500	4	3	7
2007	4,700	8	15	23
2008	4,100	8	28	36
2009	3,000	7	26	33
2010	2,990	1	33	34
2011	3,146	4	49	53
2012	2,916	3	49	52
2013	2,360	-	49	49
2014	2,500	1	45	46
2015	2,802	-	53	53
2016	2,300	-	69	69
2017	2,420	-	44	44
2018	2,255	-	52	52
	46,489	43	520	563

2018년 실제 기증자 명단

건강한 조혈모세포로 한 생명을 살려주신
기증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은성 | 고준모 | 구분승 | 권민아 | 권채린 |
김건우 | 김근범 | 김민욱 | 김연수 | 김영은 |
김장수 | 김준영 | 김지석 | 김홍립 | 김희상 |
남궁영훈 | 박소원 | 박은재 | 백승재 | 변정민 |
붓쇼아야꼬 | 서중원 | 소명섭 | 송규용 | 송심건 |
신지윤 | 엄태성 | 여은지 | 오세찬 | 윤태규 | 이민규 |
이보라 | 이선아 | 이재훈 | 이주홍 | 장명재 | 전강걸 |
정도희 | 정성훈 | 정지훈 | 차민성 | 차윤희 | 차진훈 |
최누리 | 최미혜 | 최수아 | 최수연 | 최종인 | 최준서 |
최현목 | 한하린 | 황기상

하나뿐인 별을 밝혀주고 싶어요

남성맞춤복 전문점 '우나 스텔라'

이중희^{비비안나} 대표



멋진 정장을 잘 차려입은 금융맨들이 많은 서울 여의도. 이 멋쟁이의 동네에서 멋쟁이들의 옷을 만들어 주며, 나눔의 멋까지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300호점 '나눔가게'인 남성맞춤복 전문점 '우나 스텔라 Una Stella'를 운영하고 있는 이중희 비비안나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나눔가게'는 가게의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고객들의 성금을 전달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입니다. 이 대표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이어오다, 올 1월부터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가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나 스텔라는 하나의 별, 또는 하나뿐인 별이란 뜻이에요. 제 고객들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별이잖아요. 그 별을 제 재능으로 빛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바람처럼 가게에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옷이 별처럼 수놓아져 있습니다. 너무 멋져 걸어가다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쇼윈도에 걸려 있는 옷을 한참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밝혀줄 별을 알아보고 매장에 들어와 옷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별을 만들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잘 전달돼 가게가 인기인 것 같아요. 별이 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한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 수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비비안나! 별은 별이야.' 아무리 가리고 또 가려도 별은 빛을 잃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다시 빛을 찾은 듯 이 대표는 힘이 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별 같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빛나게 노력했고, 지금은 다른 별을 비추는 큰 별이 됐습니다.

"지구촌에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유일한 별로 반짝 반짝 빛나게 창조하셨을 텐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대표가 나누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도 여유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추는 신앙인 그리스도가 그녀의 마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당연한 것인데 요즘은 나누는 게 뉴스가 된 것 같아 아쉬워요. 나눔은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도 남는 게 많아서 저희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걸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 같습니다. 저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거저 줘야죠."

내 나이 57세, 처음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부지런히 일해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가족 중 누가 크게 앓을 때를 대비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본부는 이런 상황에 처한 미얀마, 캄보디아, 케냐 등의 이웃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교육을 지원하고, 영세 농부들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본부의 사업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업명	통합적 경제 자력화와 식량안보,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업
사업기간	3년(2018-2020)
사업목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 자력화
사업지역	케냐 메루(Meru) 카운티, 은조텐(Njotene), 부우리(Buuri) 지역
협력조직	케냐 카리타스, 메루 카리타스

삶의 ‘다음’을 계획하기 어려웠던 환경

57세 여성인 줄리아 캐그니(Julia Kagine) 씨는 케냐의 은조텐(Njotene)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3에이커(ac)의 땅과 약간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줄리아 씨와 이웃들은 이자 회전방식의 ‘차마스(Chamas, 한국의 계와 유사한 방식)’를 통해서 겨우 돈을 모았습니다. 은행 지점이나 금융 대리업자가 있는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 대부분은 은행 계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농장의 생산량이 적었고, 주민 대부분은 무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씨의 남편 또한 무직이었고, 저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한 자녀들은 수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비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그녀도 돈을 모으기 위해 차마스에 매월 돈을 부었지만, 차마스의 운영방식상 1회에 1명만 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게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다르게 모으는 방식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메루 카리타스(Caritas Meru)는 서로 잘 아는 구성원끼리 자치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체 저축 및 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매주 돈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마다 구성원끼리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공동체는 금세 30명 규모가 되었습니다. 매주 저축을 하는 방식은 지역의 생활방식에도 잘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저축으로 모은 자본으로 대출을 해주고, 발생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주마다 저축한 금액,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그리고 구성원들끼리 약속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구성원에게 적용한 벌금을 다 합하니 가용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몇 달간의 저축으로 각 구성원은 대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자본을 모을 수 있었고 생활을 유지하기



은조텐(Njotene)으로 향하는 길고 먼지가 자욱한 길



줄리아 씨의 SILC 그룹 세션

위한 지출, 즉 식료품 등 물품구입비, 학비, 의료비 및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SILC입니다. SILC는 케냐 카리타스(Caritas Kenya)를 통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지원하는 통합적 경제 자력화와 식량 안보 및 환경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 자력화를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ILC를 통해 줄리아 씨를 비롯한 SILC 그룹 구성원들의 삶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2회차에 접어든 SILC의 사업 성과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각자의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재정적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움닫기 이후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해결하게 된 줄리아 씨

어느 날 줄리아 씨는 콘크리트를 구입하여 물탱크를 지면에서 띄워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탱크 바닥이 지면의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가정 및 가축 용수를 구입하기 위해 다달이 지불하는 약 2,000실링(약 2만2천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급 채소밭에 필요한 용수도 물탱크에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ILC를 통해 그녀는 두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를 제 때 낼 수 있었고, 가족이 몸이 안 좋은 경우에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줄리아 씨가 SILC 사업으로 구축된 물탱크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물탱크에서 받은 물로 케일 밭에 물을 대고 있다.

줄리아 씨는 첫 회차 때 12개월 동안 약 50실링(약 550원)을 저축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매주 100-300 실링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룹 구성원들도 매주 저축을 하기 위해 다른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양계업이나, 채소 재배, 마을 잡화점이나 가판을 열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구성원은 대부분 여성이며, 이들의 성공은 지역 남성들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유일한 남자 구성원인 존(John)은 SILC를 통해 닭, 염소 또는 소를 구입하는 등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남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리아 씨는 SILC에서 대출받은 2,000실링으로 돼지를 구입했으며, 8개월 뒤 7,000실링에 되팔았다.

줄리아 씨도 이제 닭 몇 마리와 돼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녀는 닭을 팔아 가정이나 주간 저축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입니다.

그녀는 SILC가 몇 년 안에 다른 지원으로는 불가능했던 결과로 지역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없이도 잘 해왔습니다. 우리는 SILC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생계가 나아졌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SILC와 메루 카리타스 그리고 한국의 OBOS(One Body One Spirit,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SILC를 통한 변화는 아마도 제 삶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하느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SILC를 통한 변화는 아마도 제 삶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하느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두번째
이야기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부룬디 마캄바 산골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수자원 시설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마캄바 마을에 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 물길을 잇기 위해 두번째 모금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세요.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84-077777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27-226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8년 9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감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은 곧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도 우리의 정성이 모여 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룬디

우리의 정성으로 부룬디 마캄바 마을이 달라졌어요!

마을과 마을사이에 물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 수원지 주변 공사를 위해 흙과 자갈, 모래를 구입하고, 샘물에 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해 도랑파기가 1.2km 진행되었습니다.

저장탱크와 전동펌프실이 만들어졌어요.

-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해 저장탱크와 전동펌프실 1개씩을 완공하고, 기술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합니다.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겼어요!

- 마을 주민 31명을 고용, 물공급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오랜 기간 여성들과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긴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석공으로서 일자리가 생겼고, 공동체를 위한 물저장 탱크와 물공급 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 은양게 지역 제라드(Gerard)씨 인터뷰 중에서

마을과 지역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요!

- 위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관리, 지역사회 주민조직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만남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해 물공급시설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랫동안 은양게(Nyange) 지역 물부족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캄바(Makamba) 본당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물공급망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정부 또한 전력 공급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 마캄바 지역 사회경제관련 자문 실디(Sldy)씨 인터뷰 중에서

마을물길이 완성되면 마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강한 삶

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립니다.

성 평등

여성과 아이들도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지속가능성

현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가물에도 물걱정이 없습니다.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프로젝트 참여 방법

모금기간 2018.12.01 ~ 2019.02.28

후원금 1계좌에 3만원
(1인당 2~3 계좌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84-077777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무통장 입금시 후원자명 앞에 부룬디를
붙여주세요. (ex. 부룬디홍길동)

연락처 02-727-2267
입금 후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부룬디 마을물길잇기 두번째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OBOS with 부룬디 마그넷'을
덕으로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용 납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고도하

생애첫기부

고경후 안토니오 2017.11.13생 父 고승지 母 백지연 | **고권** 2017.11.19생 父 고정진 母 한진민 | **고도하** 2017.12.09생 父 고광현 母 장민애 | **고보민 카타리나** 2013.06.18생 父 고종환 母 강민아 | **고보성 다니엘** 2015.05.28생 父 고종환 母 강민아 | **고유준** 2017.10.08생 父 고백열 母 김지은 | **고은결** 2017.04.18생 父 고기중 母 김혜라 | **곽유나** 2017.09.14생 父 곽동혁 母 김익선 | **김규빈** 2017.09.21생 父 김재복 母 편수아 | **김나윤 로사** 2017.07.10생 父 김상우 母 전유미 | **김민재 베드로** 2011.06.28생 父 김원만 母 김윤희 | **김민혁 바오로** 2016.07.07생 父 김원만 母 김윤희 | **김선빈** 2018.07.10생 父 김원기 母 배난주 | **김선하 그라시아** 2015.10.16생 父 김민중 母 이은하 | **김소은 세실리아** 2017.10.22생 父 김태준 母 최은희 | **김소은 에스텔** 2014.08.09생 父 김기영 母 김경진 | **김소현** 2018.10.12생 父 김기영 母 김경진 | **김수연 마리아** 2017.10.09생 父 김병재 母 박정심 | **김수현** 2017.11.16생 父 김재욱 母 김지연 | **김유나** 2018.10.30생 父 김영훈 母 이민정 | **김유연** 2017.01.16생 父 김찬일 母 유이경 | **김유진** 2017.11.12생 父 김영배 母 류지윤 | **김윤재** 2014.10.14생 父 김진근 母 이창숙 | **김재원** 2017.11.15생 父 김상현 母 우진희 | **김재은 빅토리아** 2014.12.19생 父 김중무 母 이나영 | **김재훈 아드리안** 2016.09.07생 父 김중무 母 이나영 | **김태연 스티븐** 2017.09.28생 父 김두한 母 오지연 | **김하준 레오** 2017.08.29생 父 김창환 母 최혜미 | **김한솔 라파엘** 2017.09.29생 父 김재홍 母 김진란 | **나리현 마카엘** 2017.09.22생 父 나용호 母 최유진 | **박밤(태명)** 父 홍승범 母 권초롱 | **루카(태명)** 2018.09.19생 父 서동완 母 이정윤 | **민규빈 사도요한** 2018.07.02생 父 민용기 母 김민정 | **박건우** 2018.08.25생 父 박성범 母 김현희 | **박권** 2017.10.30생 父 박세준 母 김지연 | **박선우 로마노** 2017.11.18생 父 박세근 母 김보민 | **박세인** 2016.09.12생 父 박준성 母 윤정림 | **박지호 니콜라오** 2018.04.24생 父 박상현 母 김민정 | **박채은** 2018.06.16생 父 박현수 母 김지연 | **박혜슬** 2017.10.12생 父 박대민 母 정경화 | **박호림** 2018.05.27생 父 박정훈 母 최형빈 | **박효건** 2017.10.19생 父 박희수 母 구혜미 | **반지을 대건 안드레아** 2013.11.11생 父 반성우 母 김은선 | **배준서 레오나르도** 2013.11.28생 父 배민후 母 박현미 | **변의준** 2017.12.19생 父 변기석 母 최선주 | **손이준 다툼** 2017.09.22생 父 손상현 母 여한미 | **송서우** 2018.07.19생 父 송영진 母 차현정 | **송인우 임마누엘** 2017.10.14생 父 송문영 母 최브리엘 | **송지원 안드레아** 2017.10.16생 父 송오영 母 임연희 | **안연우 마카엘** 2017.10.21생 父 안재영 母 한진희 | **왕은재** 2012.08.27생 父 왕정수 母 김지영 | **원승혁** 2017.08.10생 父 원유식 母 김은영 | **유지선** 2017.10.31생 父 유상진 母 박미영 | **유태림 마르가리타** 2017.11.04생 父 유민규 母 오영주 | **윤수현** 2018.07.20생 父 윤해성 母 이민희 | **윤주아** 2017.09.04생 父 윤준근 母 이윤희 | **이윤구 후베르트** 2017.11.19생 父 이진규 母 김태정 | **이재경 베드로** 2018.02.01생 父 이강민 母 김민혜 | **이정후** 2018.10.23생 父 이준영 母 윤나리 | **이지용 엘리야** 2017.10.10생 父 이재용 母 장일재 | **임윤 레지나** 2016.10.22생 父 임규진 母 이애 | **임현성 라파엘** 2017.09.14생 父 임성재 母 조정은 | **장수현 사도요한** 2018.05.09생 父 장원주 母 김정원 | **장시원** 2017.09.28생 父 장근용 母 경아름 | **정가은 마카엘라** 2017.10.04생 父 정광현 母 박숙정 | **정서은 마리스텔라** 2017.11.06생 父 정찬교 母 최혜민 | **정준영** 2018.10.08생 父 정찬민 母 김수정 | **정지은 마카엘라** 2014.04.26생 父 정택용 母 이승희 | **조우승 하상 바오로** 2017.09.16생 父 조영환 母 정선혜 | **조유준 마카엘** 2017.09.14생 父 조태현 母 박세나 | **조윤성 프란치스코** 2017.10.10생 父 조현진 母 조효진 | **조혜슬 소피아** 2017.09.16생 父 조영환 母 정선혜 | **최단 다니엘** 2015.11.10생 父 최영준 母 한성애 | **최승우** 2015.09.24생 父 최원석 母 고은경 | **최시은** 2016.09.14생 父 최지원 母 김다은 | **하도을** 2017.11.23생 父 하정길 母 이정은 | **한서하** 2015.08.24생 父 한종남 母 박효선 | **한윤상** 父 한정수 母 김나미 | **한호진** 2017.10.08생 父 한승훈 母 김미란 | **홍소원** 2018.04.26생 父 홍한솔 母 김지연

두 번째 기부

강태원 2016.09.06생 父 강도형 母 박시영 | **김강민** 2016.01.12생 父 김정훈 母 추연희 | **김서은 에스텔** 2017.11.20생 父 김범석 母 윤지현 | **김예영** 2017.09.12생 父 김용현 母 김혜성 | **김예준** 2017.09.12생 父 김용현 母 김혜성 | **김이수 라파엘** 2017.11.20생 父 김범석 母 윤지현 | **김재원** 2016.10.04생 父 김진은 母 김민혜 | **김정안** 2016.10.04생 父 김영환 母 김미영 | **김하영 베드로** 2017.11.13생 父 김베를 母 권민지 | **김효은 프란치스코** 2016.11.23생 父 김봉근 母 오혜련 | **명다승 데레사** 2016.09.02생 父 명준주 母 한정희 | **모아진 로사** 2017.09.27생 父 모상혁 母 장은지 | **박승연 이나시오** 2016.11.04생 父 박태욱 母 김지희 | **박재아** 2015.09.10생 父 박형기 母 이나래 | **박진하 스티븐** 2009.11.30생 父 박수홍 母 이희승 | **박찬영 프란치스코** 2016.11.19생 父 박종욱 母 하성희 | **박현우 티모테오** 2017.10.20생 父 박승연 母 박소현 | **배이안 사도요한** 2017.08.10생 父 배주한 母 이혜경 | **서승덕 루카** 2018.09.19생 父 서보람 母 이정윤 | **성호준** 2016.10.13생 父 성선재 母 구영남 | **송리은** 2017.08.07생 父 송혁재 母 김재원 | **오서은** 2014.05.07생 父 오경현 母 이혜경 | **오재현** 2017.09.06생 父 오경현 母 이혜경 | **유라오 니콜라오** 2016.09.07생 父 유용한 母 우미령 | **유재이** 2017.10.25생 父 유종우 母 박경화 | **윤이나** 2016.11.11생 父 윤병훈 母 박혜영 | **이동준** 2016.10.22생 父 이기영 母 이은혜 | **이상윤** 2017.08.22생 父 이진규 母 김소연 | **이재원 라벨** 2016.07.27생 父 이근형 母 박지나 | **이지안 스티븐** 2012.02.24생 父 이승우 母 박혜진 | **이지환 레오** 2016.09.05생 父 이서곤 母 김효영 | **이지후** 2015.10.06생 父 이광열 母 이선영 | **이재운 마카엘라** 2017.09.26생 父 이창한 母 김정미 | **이하을** 2018.04.02생 父 이세영 母 최유리 | **임해민 베네딕도** 2014.07.11생 父 임정원 母 국지은 | **장수현 사도요한** 2018.05.09생 父 장원주 母 김정원 | **전주안 안젤로** 2016.11.08생 父 전승민 母 정은지 | **정다인** 2016.10.28생 父 정훈 母 최민정 | **정시욱 사도요한** 2007.09.20생 父 정현석 母 임하나 | **정진재 요셉** 2009.03.05생 父 정현석 母 임하나 | **정하람 프란치스코** 2016.10.10생 父 정경수 母 백경진 | **정하윤 스티븐** 2016.10.11생 父 정남용 母 김후정 | **조운 프란치스코** 2014.12.22생 父 조주연 母 정희훈 | **최가을 가브리엘라** 2016.10.14생 父 최충혁 母 김효진 | **최승민 라파엘라** 2016.01.20생 父 최정환 母 홍수경 | **최지안 스티븐** 2017.11.05생 父 최원영 母 임교선 | **하주원 엘리사벳** 2017.11.28생 父 하대용 母 유정은 | **한다니엘 다니엘** 2016.10.02생 父 피재환 母 한소진 | **한여원 가브리엘** 2016.11.21생 父 한상휘 母 이소영 | **한여준 세례자요한** 2014.02.24생 父 한상휘 母 이소영 | **한시훈 라파엘** 2017.11.17생 父 허동주 母 박선하 | **황규현** 2016.11.26생 父 황준하 母 황윤진

세 번째 기부

권민재 2015.09.27생 父 권오준 母 김미선 | **김민서 마리아 요세피아** 2005.05.01생 母 유소연 | **김민서 클레어** 2016.08.12생 父 김현섭 母 최지희 | **김서우** 2015.06.10생 父 김대중 母 강세훈 | **김예랑** 2015.09.07생 父 김광휘 母 박지영 | **김예준 마카엘** 2010.11.20생 父 김기영 母 김은영 | **김주아 스티븐** 2015.10.09생 父 김형석 母 이지은 | **김태연 아델리나** 2014.10.28생 父 김성준 母 민숙경 | **맹서호 다툼** 2015.09.11생 父 맹상윤 母 임세영 | **민재현** 2015.10.10생 父 민경학 母 양세진 | **박다인** 2015.11.23생 父 박진우 母 최나영 | **박서우 그레고리오** 2015.09.13생 父 박영수 母 박찬진 | **박시현 프란치스코** 2014.07.24생 父 박계영 母 박소연 | **박윤솔** 2015.11.23생 父 박진우 母 최나영 | **박은재** 2016.05.03생 父 박계영 母 박소연 | **박지안 다툼** 2015.11.14생 父 박동철 母 김찬영 | **박지우 유스티나** 2016.06.11생 父 박성범 母 김현희 | **법준우 아우구스티노** 2012.08.01생 父 법지현 母 고준경 | **성재아 브리지타** 2015.10.18생 父 성시준 母 채희주 | **송민우 안나** 2015.09.03생 父 송오영 母 임연희 | **신민혁 라파엘** 2015.03.02생 父 신동우 母 김경선 | **신재용 가브리엘** 2015.11.23생 父 신영욱 母 신혜영 | **신준혁 프란치스코** 2013.01.06생 父 신동우 母 김경선 | **심설** 2016.10.20생 父 심현보 母 김지은 | **안정우 루도비코** 2015.08.25생 父 안재성 母 이유은 | **양서민 에스텔** 2016.01.14생 父 양기영 母 박현정 | **오윤성 토마스 아퀴나스** 2015.01.30생 父 오항석 母 이은희 | **유진 이** 2015.11.18생 父 유종우 母 박경화 | **이로는 마카엘라** 2015.10.22생 父 이재관 母 양미경 | **이서연 클라우디아** 2015.08.25생 父 이성진 母 장성희 | **이승민 니콜라오** 2015.07.09생 父 이동형 母 김희선 | **이정원** 2016.09.14생 父 이성은 母 박혜윤 | **이준승 사도요한** 2015.10.17생 父 이태민 母 장정희 | **이재원 마카엘라** 2012.10.17생 父 이우연 母 남남옥 | **이해나 노엘라** 2016.01.06생 父 이남근 母 최윤아 | **이하을** 2018.04.02생 父 이세영 母 최유리 | **정소람 스티븐** 2015.09.26생 父 정승근 母 박은정 | **정유나 소하데레사** 2015.10.02생 父 정용준 母 김혜림 | **정윤재 마르첼리노** 2015.10.26생 父 정동열 母 임혜경 | **정시우** 2015.09.21생 父 정준현 母 이정하 | **정하윤 베로니카** 2015.06.27생 父 정찬교 母 최혜민 | **정하은 세라피나** 2011.11.06생 父 정택용 母 이승희 | **조서아 에밀리아** 2014.10.26생 父 조영범 母 송다혜 | **조예원 아네스** 2015.09.14생 父 조영현 母 박희연 | **조유주 에스텔** 2010.03.29생 父 조수결 母 조아영 | **조윤상 마카엘** 2015.09.02생 父 조한필 母 배윤경 | **지소현 그라시아** 2015.09.09생 父 지성배 母 김인영 | **차건호 레오** 2015.03.02생 父 차동열 母 송정하 | **최윤서** 2016.10.22생 父 최현중 母 조혜원 | **홍지환 베드로** 2016.07.27생 父 홍한솔 母 김지연



김이현



명다솜 데레사



오윤성 토마스 아퀴나스



홍라운 플로라

네 번째 기부

고다연 빅토리아 2014.09.22생 父 고대우 母 서나영 | **고다윤** 2014.03.08생 父 고용수 母 강현정 | **고주원** 2014.03.08생 父 고용수 母 강현정 | **김주원 니콜라오** 2014.11.26생 父 김성호 母 윤수진 | **김호연 프란치스코** 2014.04.05생 父 김재균 母 정예경 | **배수현** 2014.09.04생 父 배재민 母 임나민 | **오연우** 2014.11.25생 父 오경석 母 오규선 | **용성재 프란치스코** 2014.10.02생 父 용인순 母 정익진 | **윤서준 바오로** 2014.12.12생 父 윤태호 母 김인혜 | **윤태영 다니엘** 2010.03.27생 父 윤선웅 母 김기욱 | **윤하영 로사** 2007.08.27생 父 윤선웅 母 김기욱 | **이건형 요한보스코** 2014.11.24생 父 이상용 母 신은영 | **이레나 엘리사벳** 2015.10.20생 父 강동진 母 이경은 | **이상우** 2016.01.01생 父 이강혁 母 장근영 | **이연우 라파엘라** 2015.09.03생 父 이정호 母 임화란 | **이우림 마리아** 2014.11.24생 父 이진표 母 박현진 | **이현아 발렌티나** 2014.11.29생 父 이봉원 母 강지은 | **조원호 테오도로** 2013.11.07생 父 조용현 母 박희연 | **조윤호 알베르토** 2013.11.07생 父 조용현 母 박희연 | **최라엘 라파엘라** 2014.12.23생 父 최종혁 母 김효진 | **추도윤 레오** 2014.09.04생 父 추재호 母 김지원 | **홍라운 플로라** 2014.11.25생 父 홍진용 母 김은슬 | **홍이슬 소피아** 2014.09.16생 父 홍성호 母 이민영

다섯 번째 기부

김서은 마르가리타 2014.10.15생 父 김남호 母 오혜순 | **김예은 리디아** 2012.10.26생 父 김성준 母 민숙경 | **김은재** 2013.07.04생 父 김민규 母 이예진 | **김지아 노엘라** 2013.09.04생 父 김경렬 母 김현정 | **배유민 미카엘** 2013.09.24생 父 배세영 母 서상미 | **백준열 아우구스티노** 2013.08.21생 父 백익환 母 진민경 | **양서준 레오** 2013.11.10생 父 양기영 母 박현정 | **양현재 미카엘** 2013.09.11생 父 양경오 母 이지혜 | **염호준 세례자요한** 2013.06.17생 父 염동훈 母 이하림 | **이다니엘** 2013.11.18생 父 이종섭 母 이해령 | **이성빈** 2013.10.20생 父 이장현 母 이은실 | **이수하 글라라** 2014.10.07생 父 이상준 母 김희경 | **임요셉 요셉** 2013.11.10생 父 임재민 母 박재원 | **조윤기 보나** 2011.09.19생 父 조승훈 母 이종란 | **조은기 리나** 2011.09.19생 父 조승훈 母 이종란 | **한스텔라 스텔라** 2012.08.20생 父 피재환 母 한소진 | **한원준 아우구스티노** 2012.08.28생 父 한창환 母 이미지 | **함지완 레오** 2013.09.13생 父 함병훈 母 하유리 | **함지인 보나** 2011.05.03생 父 함병훈 母 하유리

여섯 번째 기부

김진후 에드워드 2015.12.12생 父 김정민 母 손영지 | **김효근 프란치스코** 2014.04.15생 父 김광연 母 이지은 | **도서를 가브리엘** 2012.10.24생 父 도경우 母 강문영 | **박지유 스텔라** 2013.07.12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송예은 에스텔** 2009.09.03생 父 송재욱 母 이해진 | **신재하 미카엘** 2012.11.04생 父 신영욱 母 신혜영 | **오다인 안나** 2012.09.17생 父 오상무 母 하미선 | **오세인 라파엘라** 2010.01.11생 父 오상무 母 하미선 | **윤나리 가브리엘라** 2012.09.29생 父 윤병훈 母 박혜영 | **이가은 스텔라** 2012.08.31생 父 이규행 母 김윤희 | **이민우 미카엘** 2012.09.09생 父 이진표 母 박현진 | **이예준** 2012.11.21생 父 이승대 母 김주연 | **이흥민 세라피노** 2012.10.12생 父 이강표 母 한규진 | **조유슬 올리아나** 2011.08.05생 父 조창완 母 최윤정 | **한시윤 로사리아** 2011.10.07생 父 한준석 母 고은옥 | **홍지유 마리아 이사벨라** 2012.08.29생 父 홍원기 母 김민지

일곱 번째 기부

김민준 루카 2010.10.23생 父 김유진 母 강선모 | **김이현** 2011.09.21생 母 흥은정 | **김지훈** 2011.12.04생 父 김남성 母 이예리 | **박대림 다미안** 2015.08.10생 父 박정훈 母 최형빈 | **유은준** 2012.09.04생 父 유형석 母 이지원 | **이지우 엘리사벳** 2011.09.05생 父 이택근 母 이경화 | **임서연 헬레나** 2009.07.11생 父 임치환 母 민지혜 | **정하율** 2012.10.15생 父 정훈 母 최민영 | **한승우 라파엘** 2010.07.29생 父 한상훈 母 김주연

여덟 번째 기부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전상훈 스테파노** 2009.01.26생 父 전진 母 흥은주

열 번째 기부

이준수 사도요한 2008.10.11생 父 이종혁 母 김희선

열두 번째 기부

고민음 2015.06.11생 母 고영미 |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세 번째 기부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일곱 번째 기부

김지원 루카 2014.09.20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스무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스물한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생일 기부

김경현 | 김동영 프란치스코 | 김영재 사도요한 | 김지원 | 김준경 보나 환갑 기념 | 김판이 레지나 | 오문숙 세레나 | 이민아 체칠리아 | 정훈 | 천정환 베드로 | 홍석범 레오

축일 기부

김경선 소화데레사 | 조유진 소화데레사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구현진 제랄도 | 故 남상남 알브로시오 | 故 민성순 소화데레사 | 故 송승선 베드로 | 故 아기천사 별이 | 故 최명자 마리아 | 아기천사 조유찬 프란치스코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강인호 베드로 & 안미선 글라라 결혼 3주년 | **고수영 & 한은지 소피아** 결혼 1주년 | **김범준 베드로 & 정소원 알로이시아** 결혼 3주년 | **김형태 니콜라오 & 김정혜 그라시아** 결혼 25주년 | **박태훈 & 장윤정** 결혼 1주년 | **임기훈 & 이재윤 리카르다** 결혼 17주년 | **오민석 & 이해영 가밀라** 결혼 2주년 | **이성환 요한 & 이은주 헬레나** 결혼 42주년 | **이수민 레오 & 김성희 루시아** 결혼 12주년 | **이우연 다미아노 & 김남욱 글라라** 결혼 11주년 | **최정환 베드로 & 홍수경 베로니카** 결혼 10주년 | **홍성민 알렉산델 & 이병조 마리아** 결혼 5주년

감사 기부

고종환 예로니모 | 김정재 가브리엘 | 류홍인 베드로 첫 월급 기념 | **박민정 에밀리아나** 세례 기념 | **변해지 벨라데타** 건강회복 기념 | **북한성당** 첫영성체반 | **서울대신학교** | **양현석 요셉** 개입 기념 | **이지윤 하상 바오로** 입학 기념 & 학대가족 기념 | **임명화 이레나** | **조서희 아가페** 생일 및 이직 기념 | **최연경 미카엘라**

한마음한몸 새 소식

1 2018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눈다면 기적이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12월 25일(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2018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본부는 장기기증을 실천한 이들의 숭고한 사랑에 감사를 전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사회에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함께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800석 규모의 홀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관람 후 직접 무대에 나온 이동우 씨는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아니스트 송광식 씨와 함께 아름다운 공연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서울성모병원에서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 48분의 영상을 함께 보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생명나눔에 대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뇌사로 인해 6명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김기석 군의 아버지 김태현 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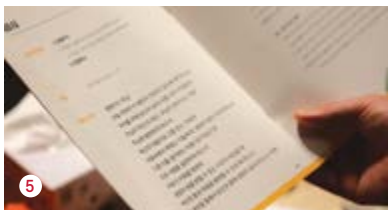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며 실려 간 응급실에서 기석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눈다면 기석이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가족들 다 동의해서 장기기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태현님은 자녀를 보낸 이후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고인의 몸에 칼을 대게 하다니 참 독하다’, ‘돈은 얼마를 받았느냐’는 식의 오해를 받아 힘든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숭고한 일을 하고도 자랑스럽게 장기기증자의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워서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주셨습니다.

- ① 행사장 바깥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홀 로비 한편에는 생명나눔 캘리그래피 작품과 장기기증 홍보 전시물도 설치되었습니다.
- ② “현대 의학으로 제 눈은 수술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 다. 이분들을 보면 저는 이미 눈을 뜬 거나 다름없습니 다.” 이동우 씨가 말했습니다.
- ③ 2004년 심장 이식을 받은 김영희 님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 ④ 장기기증자들의 유가족 대표께 유경춘 주교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 ⑤ 2부 행사로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생명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김해정 팀장님을 모시고 장기기증에 대해 듣는 사전 행사와 본부 이사장이신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님 인사 말씀 후,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작은 개그맨 이동우 씨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임재신 씨의 실제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 편집본 관람이었습니다.

근육병 장애를 가진 임재신 씨가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동우 씨의 다큐멘터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그에게 눈을 주고 싶다고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지금은 보는 것(See)만 할 수 있는 임재신과, 과거엔 볼 수 있었던(Saw) 이동우가 서로의 손과 발, 눈이 되어



2004년 심장 이식을 받은 김영희 님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심장이식을 받은 지 14년째인 김영희 님은 “심장이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제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남은 인생 정말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장기기증자들의 유가족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의 송고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위로와 감사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경춘 주교님이 직접 전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본당과 기관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기기증자들의 송고한 생명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미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자리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떠나신 모든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속 평화를 본부 직원들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 2018 랄랄라&살자살자 생명콘서트 〈희망을 합창하다〉



“오늘 특별한 노래를 나누어주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노래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콘서트가 더 뜻깊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춘 주교님

본부는 지난 12월 12일(수),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2018 랄랄라&살자살자 생명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콘서트는 지난 2012년부터 우리사회에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평화방송,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연대하여 매년 생명존중 문화 콘서트 형식으로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합창하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의 외면 속에 인내해온 감성노동자, 지역사회의 안전을 돌보는 경찰관과 소방관, 자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는 유가족, 사회 부정의에 온몸으로 맞서는 해고노동자와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생명운동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등 타인과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을 잊었던 분들이 모여 연대와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 챔버오케스트라’와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포함된 ‘생명의 소리 합창단’,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는 ‘416 합창단’ 등이 출연해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첫 내한 이후 내한 47주년을 맞는 세계 최고의 소년 아카펠라 합창단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콘서트는 모든 합창단원이 무대에 올라 관객 800여 명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합창과 연주는 음악을 통해 슬픔을 희망으로 위로하고 절망을 연대로 극복하며 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 ① 공연장 바깥에서 이루어진 자살예방캠페인
- ② 한빛 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
- ③ 무대와 하나 되어 음악에 조율되 집중하고 있는 관객들
- ④ 416 합창단의 공연
- 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공연

3 2018 산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진행된 <2018 산타가 되어주세요>. 한 분 한 분이 산타가 되어 만들어주신 선물들이 전국의 병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12월 18일(화)에는 본부 이사장 유경춘 주교님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접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제오르지오 신부님이 준비한 루돌프 모자를 쓰고, 주교님은 삼성병원 원목실 담당 염기철 베드로 신부님 등과 함께 8층의 어린이 병실을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인 서기웅 교수님께서 병실안내를 해주시며 환아들의 상태나 병동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낮은 소아·청소년들이 입원해 있는 다인실이어도, 워낙 작은 아기들도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또 조심히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린 아이까지 입원해 있는 모습에 주교님은 지그시 바라보다가 기도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같은 층에 위치한 소아·청소년 암센터에서도 산타의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사진 촬영 등은 병실 밖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전달을 마친 후에는 병원 원목실에서 어린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산타 선물전달을 위해 애써주신 삼성서울병원 원목실 신부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이벤트가 투병 중의 환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산타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4 제6회 한·일 자살예방심포지엄 개최



한·일 가톨릭 교회는 2013년부터 매년 자살예방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고 고통받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생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양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및 CS 생명존중문화만들기 협의체 대표와 실무자가 일본 나고야에 방문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차별로 인해 자살위기에 내몰린 이들을 향한 돌봄'의 주제 발표를 통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뜻을 모았습니다.

5 자살예방센터 상담봉사자 특강 및 미사



지난 12월 3일(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전화 상담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미사'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로 힘들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상담봉사자분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슬픔과 절망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파이팅입니다.

6 원주교구 '2018 장기기증자 만남의 날' 개최



원주교구 '2018 장기기증자 만남의 날' 행사가 12월 8일(토) 원주 가톨릭센터 2층 마리아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1부 장기기증 교육, 2부 창작 뮤지컬 '사도 베드로', 3부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와 사제단 공동 집전의 미사 봉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실천방법의 하나로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7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이사장 회동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에서는 지난 12월 19일(수) 서울대교구청 신관에서 이사장 회동을 하고 올해 사업평가와 더불어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정책 활동 등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 의료인 교육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잇기, 생명나눔실천본부, 국제장기기증윤리협회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8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띠앗누리 26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6기가 지난 12월 1일(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구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띠앗누리 26기는 3차례의 배움터를 마치고 오는 1월 8일(화)~22일(화) 동안 캄보디아 깜벵고 마을로 현지활동을 떠납니다. 띠앗누리 26기 단원 12명과 스태프 3명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9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10월 10, 24, 31일(수) 서울 계성고등학교, 12월 12일(수) 안성 안법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이라는 주제의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물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알아보고, 원인과 결과를 논의하며 직접 실천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0 환우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18. 9~12. | 단위: 만 원

지원사업	성명	병명	진료비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사업	이○○	림프절의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	900
	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1,000
	다○○	간비종대, 염증성 장질환의증, 알레르기성 대장염의증	1,000
	레○○	우발열성 발작	150
	사○	신생아의 폐동맥 고혈압(희귀)	1,000
	자○	막주변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동맥관개방	1,000
	우○○	뇌종양(암)	950
	김○○	상세불명의 운동실조, 중추기원의 현기증	1,000
	륜○○○	태변흡입증후군	1,000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사업	쉐○○○	말기 신부전증	500
	김○○	급성백혈병	900
	장○○	신장이식, 말기신장병투석	1,000
	김○○	급성 골수성 백혈병	800
	김○○	급성 골수성 백혈병	900
	김○○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1,000
긴급지원사업	서○○	구순구개열, 상세불명 부정교합	600
	이○○	우측 고관절부 대퇴골두골괴사	200
	나○○○	제왕절개, 상세불명의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폐결핵	900
	오○○	림프절의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	610
	사○○○	심부전, 승모판협착, 뇌경색증	900
	심○○	병적 비만	700
	클○○○	응급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	500
	박○○	치양우식/매복치/치아경부의 마모증	700
	양○○	상세불명의 패혈증	490

201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8년 한 해도 함께해주신 후원자님의 나눔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도 미리 준비하세요!

1.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 등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연락처(02)727-
2285, 2288)로 연락 바랍니다.

*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내역이 있는 후원자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수령방법

일괄 우편 발송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후원자님에 한해 2019년
1월 중 일괄 발송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자님에 한해 확인이 가능합니다(2019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후원단체 확인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고유 번호증과
법인설립허가증을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ARS로 후원하신 내용은 KT에 060-700-1117의 통화
내역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신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과 나이에 관계 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의 기부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적용받는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
- 기부금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후원자의 명의 변경 및 가족 기부금 합산
등의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님의
협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27-2285, 22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연락주시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법을 안내해드립니다.

02)727-2285, 2288 |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